

다시 오월...5·18 36주년 행사 본격 시작

오늘 '그 위대한 연대'전 개막...사진·외신 기록물 공개 16~17일 광주아시아 포럼·20일 토크 콘서트 등 다채

5월로 접어들면서 제36주년 5·18광주 민주항쟁 기념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기념행사는 끊이지 않는 5·18 역사외곡에 대응해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는 자리, 고통받고 소외된 민중들과 함께하는 행사 중심으로 치러진다는 게 특징이다.

1일 제36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 위원회(행사위)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금남로를 비롯한 광주 전역에서 '오월 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5·18 정신계승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5·18유족회는 1일부터 5월 말 기간 국립 5·18민주묘지 일원 등에서 추모 리본 달기 행사를 주관하고 같은 기간 (재)오월 음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오월음악회를 개최, 추모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2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관에서는 5·18 기념재단이 준비한 '5·18, 그 위대한 연대'라는 이름의 전시회가 시작된다. 1980년 5월 독일,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광주를 지지하며 열었던 시위 사진, 당시 외신의 보도 내용 등 100여점의 기록물이 전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13일에는 5·18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5·18 역사외곡을 분석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유포하

는 등 10년여간 5·18을 폄훼한 지만원씨 사례 분석과 함께 국경 역사교과서에서의 역사왜곡을 다룬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오는 16일 5·18 기록관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취재했던 외신기자와 국내 해직 기자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같은 날 망월동역에서는 최근 독일에서 타계한 푸른논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17일은 5·18민주항쟁 추모제와 전야제가 잇따라 개최된다. 이날 오후 금남로에서 예정된 민주대행진에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보성 농민 백남기씨의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함께 한다.

16일과 17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2016 광주아시아 포럼'도 눈길을 끄는 행사다.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을 주제로 진행될 포럼의 기조연설은 로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와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초대 대통령이 맡는다.

민주기사의 날인 20일에는 무등경기장에서 금남로 옛 전남도청까지 80년 5월 당시처럼 차량시위가 재현된다.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기록물 속 인물과의 토크 콘서트'가 마련돼 있다.

제36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27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부활제, 28일로 예정된 대학생 5·18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월이 시작된 1일 광주시 북구 오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5·18광주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올해에도 다양한 추모행사가 마련된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제창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5·18민주항쟁 36주년 기념행사 일정표(안)

| 일시 | 행사명 | 장소 |
|------------------|---------------------|---------------|
| 5월2~6월11일 | '5·18, 그 위대한 연대' 전시 | 5·18기념문화관 전시실 |
| 10일(화) 오후 2시 | 오월어머니상 시상 | 오월어머니집 |
| 10~8월15일 | 2016 아시아 민주인권평화전 | 광주시립미술관 |
| 13일(금) | 학술대회-역사부정과 왜곡대응 | 전남대 |
| 14~23일 | 법정·영장 체형행사 | 5·18자유공원 |
| 14일(토) 오후 4시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주대행진 | 5·18민주광장 |
| 15일(일) 오후 7시30분 | 오월창작가요제 | 5·18민주광장 |
| 16일(월) 12시 | 외신기자 초청행사 | 5·18기록관 |
| 오후 2시 | 위르겐 힌츠페터 추모제 | 망월동 구묘지 |
| 16~17일 | 2016 광주아시아포럼 | 5·18기념문화관 |
| 17일(화) 오전 10시30분 | 5·18민주항쟁 추모제 | 국립5·18 민주묘지 |
| 오후 7시 | 5·18민주항쟁 전야제 | 5·18민주광장 |
| 18일(수) 오전 10시 |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국립5·18 민주묘지 |
| 오후 5시 | 2016 광주인권상 시상식 | 5·18기념문화센터 |
| 20일(금) 오후 2시 | 민주기사의 날 차량시위 재현 | 무등경기장~구 전남도청 |
| 오후 3시 | 기록물 속 인물과의 토크 콘서트 |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
| 21일(토) 오후 1시 | 5·18 Red Festa | 금남로 |
| 오후 7시 | 5·18문학상 시상식 | 5·18민주광장 |
| 27일(금) 오후 6시 | 5·18민주항쟁 부활제 | 5·18민주광장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0, 해질 19:19, 달뜨기 02:32, 달지기 14:07

들풍주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 (°C) |
|-------------|
| 광주: 16/22 |
| 목포: 15/20 |
| 여수: 16/19 |
| 나주: 14/23 |
| 완도: 15/20 |
| 구례: 14/22 |
| 강진: 14/20 |
| 해남: 13/20 |
| 장성: 13/21 |
| 보성: 13/19 |
| 순천: 14/21 |
| 영광: 15/22 |
| 진도: 15/20 |
| 군산: 14/25 |
| 홍산: 12/23 |
| 홍산도: 14/17 |

| 바다 날씨 | | 생황지수 | |
|-------|------|---------|------|
| 지역 | 오전 | 오전 | 오전 |
| 서해 | 남동~남 | 0.5~2.0 | 남동~남 |
| 남부 | 남동~남 | 1.0~2.5 | 남동~남 |
| 남해 | 남동~남 | 0.5~1.5 | 남동~남 |
| 서부 | 남동~남 | 1.0~2.0 | 남동~남 |
| 서해 | 남동~남 | 1.5~2.5 | 남동~남 |

| 시간 | 3(화) | 4(수) | 5(목) | 6(금) | 7(토) | 8(일) | 9(월) |
|----|-------|-------|-------|-------|-------|-------|-------|
| 날씨 | ☁ | ☀ | ☀ | ☀ | ☀ | ☀ | ☀ |
| 날짜 | 16/18 | 11/24 | 12/26 | 12/21 | 11/24 | 11/25 | 11/24 |

전남 '지카' 비상...매개모기 절반 분포

98마리중 목표 38·완도 7마리...바이러스 검출은 안돼

본격 모기 활동철(5~10월)을 앞두고 전남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흰줄숲모기의 알과 유충이 다수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3월 목포, 완도, 제주, 부산, 통영 등 전국 5개 지역 37개 지점에서 모기 월동조사를 한 결과, 모두 98마리의 흰줄숲모기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목포 38마리, 완도 7마리 등 전남에서만 모두 45마리가 확인됐다. 통영에서는 41마리, 부산에서는 12마리의 흰줄숲모기가 채집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열대화로 진행 중인 5개 지역에서 모기 월동조사를 진행했다"며 "지카 바이러스와 땀가미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따부터 본격적으로 모기가 활동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단위 모기감시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날 말에는 국내 3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고, 청주와 진주 등 지역에서 흰줄숲모기 성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흰줄숲모기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과 땀가미, 치쿤구니야열 등을 전파할 수 있는 매개 모기다. 국내에서는 전국에 걸쳐 서식하며, 봄철 알에서 깨어나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다. 주로 숲이나 숲 근처 주택가에서 서식하며 낮에 활발히 흡혈 활동을 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mm이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해안 등지에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항해·조업하는 선박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망월동 구묘역에 힌츠페터 추모 정원

기념재단, 16일 추모제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영상으로 기록해 전 세계에 알린 독일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씨를 기리는 정원이 망월동 구묘역에 만들어진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시 북구 망월동 구묘역에 힌츠페터 추모 정원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정원은 최근 23년 만에 다시 쌓은 5·18 추모돌담 옆에 자리한다. 애란, 자산홍을 심고 힌츠페터씨를 기리는 표지석도 세운다. 표지석에는 그의 생애와 언론인으로서 업적, 그가 쓴 기사의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고인은 지난 2005년 광주를 방문해 5·18 기념재단에 맡겼던 손톱, 머리칼 등은 도예작가가 만든 무등산 분청사기에 담겨 표지석 아래 안장된다. 고인은 생전에 가족 등 주변에 '죽으면 광주에 묻어달라'

고 수차례 밝힌바 있다. 정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오는 16일에는 공식 추모식이 열린다.

추모식에는 부인 프랑수아즈 에렐트라우트(79)씨 등 유족과 5·18을 현장에서 취재한 브래들리 마틴(미국·더 볼티모어 선), 도널드 커크(미국·시카고트리뷴), 노만 쇼프(미국·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팀 셔록(미국·저널오브커머스) 등 외신기자 4명도 함께한다. 고인은 1980년 5월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중 광주로 내려와 신군부의 만행을 현장에서 취재해 가장 먼저 세계에 알렸다.

힌츠페터씨가 목숨을 걸고 기록한 영상은 군부독재의 폭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는 지난 1월 25일 독일 북부의 라체부르크에서 투병 끝에 타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닦아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고인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새를 없앱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편

1599-7652
NAVER [연합건설] 검색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은 현지 답사후 상의 결정

H. 010-3119-6952